

지구촌 여성들은 왜 집을 떠나는가

ACC 라이브러리파크 상설전 연계 '떠난 자들의 행진: 여성과 이주' 13일~9월 24일...6차례 강연·체험 행사·토크·영화 상영 등 다채

'아시아', '이주', '여성'. 세 언어가 환기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외와 약자 그리고 비주류를 함의한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아시아인, 그 가운데 여성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주의 여성화라 불릴 만큼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은 왜 집을 떠나는 것일까?



김현미 교수

성의 목소리를 매개로 돌봄 중심의 연대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주로 연구해온 김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변역',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등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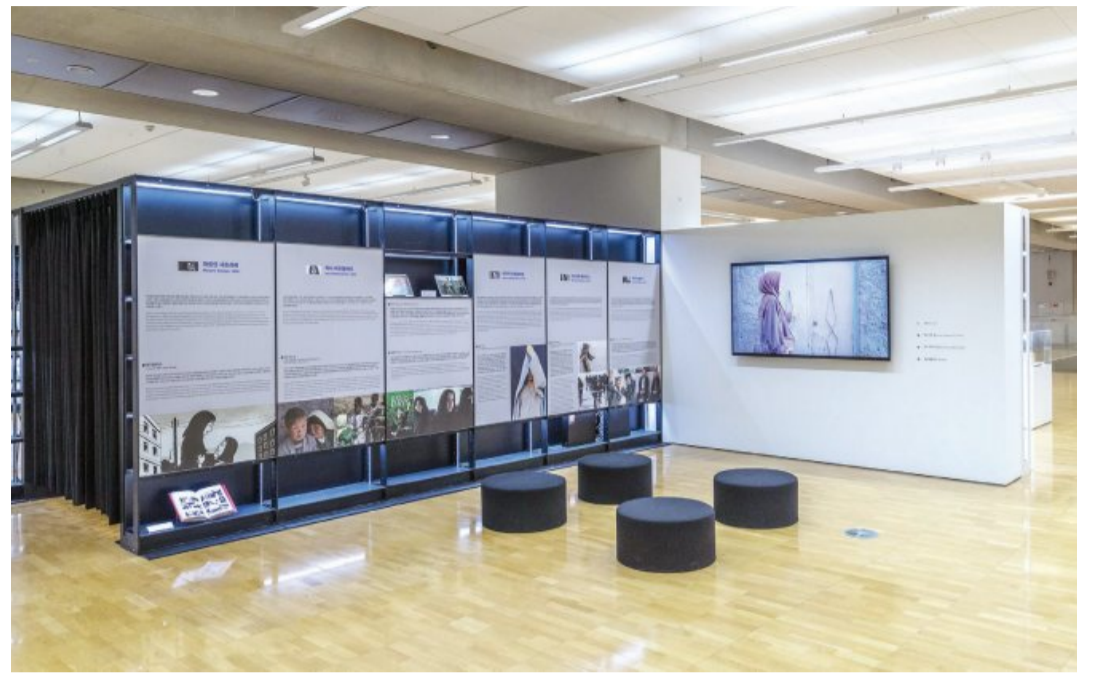
다소 도발적이며 안타까운 이 질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협)이 아시아 여성과 이주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시대 여성과 이주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과 의미, 대안 등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첫 번째 문은 오는 13일 라이브러리파크 특별열람실에서 연세대 김현미 교수가 연다. 김 교수는 '왜 여성은 집을 떠나는가'를 주제로 이주와 여성을 강연한다. 여성들이 집을 떠나 무엇을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야기하며 특히 이주 여

14일 진행되는 두 번째 강연은 주제부터 특이한 여성 괴물 이야기다. 작가들로 구성된 초우상회(최고은·최하나)가 '여성 괴물 대행진'을 주제로 강연과 체험행사를 펼친다. 이들은 책 '백귀주행: 여성괴물행진'을 만들며 발견한 여성 괴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여성 괴물'만의 특징이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최하나와 함께 '돌꽃이요괴협회'를 설립한 최고은은 작품 기르기를 좋아하는 농부 연습생이다. 최하나의 이야기 쓰기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독립영화 '애비규환'을 쓰고 연출했다. 영화를 감상하고 이를 토대로 토크 시간도 이어진다. 3회차는 오는 20일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



페리니칸 양식의 접시.

서 이란 영화 '검은 집' (1962)를 본다. 뉴이란시네마의 선구자이자 시인인 포르그 파로흐자드 감독을 맡았다.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인간 존엄에 대해 질문을 던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작품 설명과 함께 포르그 파로흐자드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네 번째 시간(9월 17일)은 특별열람실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노동과 저항'을 주제로 열리며 홍명교 플랫폼C·연구활동가와 함께 '바닥을 향한 경주'가 펼쳐지는 저임금 이면을 살펴본다. 홍명교 플랫폼C·연구활동가는 '유령, 세상을 향해 주먹을 뻗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등을



전시장에 전시된 '아시아 여성의 삶: 영화 속에 투영된 이란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썼으며 '아이폰을 위해 죽다' 등을 번역했다. 9월 18일에는 '냉전과 자본주의: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문선아 학예사와 최원준 작가가 동부천과 파주를 중심으로 미군 부대 기지촌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이주 노동자 유입에 주목한다. 문선아는 스페이스 아프리카아시아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원준은 시각예술가이자 연구자로

북한 문제를 다양한 매체로 발표해 왔다. 마지막은 '아시아 여성 여행자의 역사' (9월 24일) 강연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박소현 독립 연구자는 고대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부터 싱가포르 삼수이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매개로 여성의 이동이 확대된 역사를 공유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멀리뛰기·도움닫기·장애물 넘기 목포 국도1호선독립영화제에서

18~21일 개최...개막작 강희진 감독 'May*JEJU*Day' 등 상영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작품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한 영화 등 다양한 독립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제 9회 목포 국도1호선독립영화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목포해양대학교와 시네마라운지 MM,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영화제는 전남 유일의 독립영화제로 지난 2014년 독립·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다. 이번 영화제는 "파도로 멀리, 바다로 깊이"라는 슬로건으로 영화로 장애물 넘고, 멀리 뛰어도 보고, 서로의 도움 받아 높이 뛰기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작은 강희진 감독의 'May*JEJU*Day', 고양이 감독의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세요', 김수로 감독의 '8x6', 김윤지 감독의 '순자와 이슬이' 4편이며, 장·단편 독립영화를 4개 세션으로 나눠 상영한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멀리뛰기'와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담은 '장애물 넘기', 처음 영화제에 출품하는 감독의 작품들이 모인 '도움닫기', 서울의 지역에서 만든 로컬 영화 중심의 '높이뛰기'로 구성됐다. 멀리뛰기 세션에서는 양주영 감독의 '김정은 아저씨'와 한동균 감독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박세암 감독의 '마을 속에 남는 사람', 김상규 감독의 '스텔링', 유최늘샘 감독의 '우도마을다이아리', 라정인 감독의 '영숙'을 선보인다.



'순자와 이슬이' 스틸컷

도움닫기 세션에서는 김민주 감독 작 '데드엔드', 김해리 감독의 '벌레(Bug)' 등 7개 작품을 높이뛰기 세션에서는 이승재 감독의 '그렇습니까? 오키아피입니다'와 이윤진 감독의 '나들이' 등 8개 작품을 선보인다. 장애물 넘기 세션에서는 한재이 감독의 '1+1' 등 19개 작품을 상영한다. 폐막작은 배세정 감독의 '엄마는 영화감독'이다.

영화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개막식을 갖고 사흘 간의 일정에 들어가며 21일 오후 6시 30분 폐막식을 갖는다. GV(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됐으며 제로 웨이스트 부스, 굿즈샵 등을 통해 관객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공식 인스타그램(@nr1iff)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양 출신 안영 장편소설 '만남, 그 신비' 펴내

광양 출신의 안영 소설가가 장편소설 '만남, 그 신비' (레벤북스)를 펴냈다. 80넘어 발간한 장편소설은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자전적 소설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설은 당초 저자가 지난 1968년 '현대문학' 1월호에 '가을 그리고 산사'를 발표한 이후 작품 속 주인공 수송승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 나갔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과의 기대와 맞물려 나오게 됐다. 첫 소설로부터 무려 52년만의 시간이 흘러 탄생한 결과물이다. 저자가 그동안 주인공과 영적 동반자로 편지를 나누어 왔는데 비율의 나이에 이른 이제는 독자들 과도 함께 교감하고 싶어 소설 형식으로 펴냈다고 한다.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폭넓은 지성, 그리고 깊은 영성을 독자들 과도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제 문학과 신앙에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그분과 나는 이야기를 소설로 엮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저자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이지만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을 조망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환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시종 소설가는 이 작품에 대해 "곰핍을수록 맑아지는 영혼의 빛 같은 소설", 문학 평론가인 김중희 전 경희대 교수는 "맑고 아름다운 정신적 사랑의 이야기"라고 평했다. 한편 안영 작가는 조선대 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전남여고, 여수여고 등에서 교사를 했으며 환승문 문학촌 소나기 마을 춘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돌만의 이야기', '치마폭에 꿈을', '저울 나그네', '기슴에 묻은 한 마디' 등의 소설집과 '그날 그 빛으로', '아름다운 귀향' 등의 수필집을 펴냈다. 한국문화상, 펜문학상 월간문학상, 제1회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어' 감독·주인공 초대 광주극장, 15일 이일하·모지민

독보적인 드래그 아티스트의 성장담을 담은 영화 '모어'의 이일하 감독과 주인공 모지민씨가 오는 8월 15일 오후 3시 20분 광주극장에서 GV(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세상의 규정에 저항하고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좇으며 살아가는 독보적 드래그 아티스트 모어의 삶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음악으로 담아낸 영화다. 영화는 2022년 10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아빈 크리에이티브 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47회 서울 독립영화제(특별장군상), 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특별상 - 아름다운 기러기상)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모어는 지난 6월 개봉 이후 1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식지 않은 열기를 유지하며 N차 관람을 부르는 화제의 다큐멘터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물에서 조형미를 찾다

소암미술관 28일까지 박기태·이호동·최희원 현대 조형미술전

버려진 폐품으로 만든 의자, 고철로 재현한 동물, 나무를 깎아 만든 파도 물결의 울동감. 참신한 발상과 실험성을 담은 입체 조형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은 오는 28일까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작가를 초청 현대 조형미술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초대 아티스트는 박기태·이호동·최희원 작가로 세 작가의 남다른 시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존재의 고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 철, 폐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2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시선과 도전의식이 만들어낸 작품은 독특한 질감, 비례, 형태 등을 통해 조형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고철을 활용하는 박기태 작가는 용접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표현해낸다. 대부분 작품은 안정적인 모습보다는 균형을 잃은 위태롭고 부자유스러운 느낌을 전한다. 거친 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작품은 자유롭고 울동감 넘치는 포즈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호동 작가는 버려진 폐품에 전혀 새로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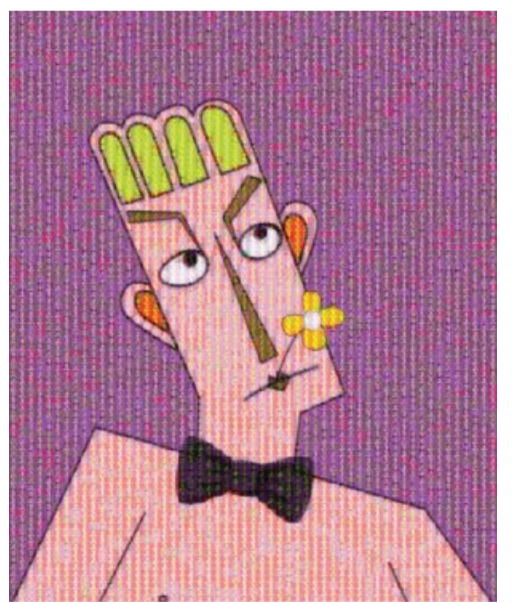
이호동 작 '낮선 만남 1'

능을 부여해 존재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 아트를 선보인다. 배드민턴채와 고철을 이어붙인 의자, 녹이 쓴 농구공대를 이용한 놀잇감, 계단포장재와 타구공을 이용한 조형작품 등이 대표적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오브제들이 어우러져 유쾌한 작품으로 거듭났다. 최희원 작가는 나무에 용접을 흘려 만들어낸 인위적 파도의 반복적 움직임을 추상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

일상에서 나를 찾다

윤성민전 9월 4일까지 드영미술관

처음엔 꽃을 입에 문 만화캐릭터 같은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만,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화면 속에 배경처럼 박혀있는 수많은 인물상이 보인다. 윤성민 작가 개인전이 오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열린다. 'RUSTIC NORMAL LIFE(투박한 보통의 삶 - 현대인의 존재실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유년시절 '스님 염마', '템플 스테이' 등 절에 관한 추억이 많았다.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 남아 창작하는 행위로 표출되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자아성찰' 시리즈로 이어졌다. '투박한 보통의 삶' 시리즈는 작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시킨 작품이다. 현실을 위해 개인의 이상을 양보하는 모습은 무채색으로 표현했으며 개인과 대비되는 공동체 사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화면의 구조나 소재, 색감 등을 통해 화려하게 표현했다. 신체 일부인 발의 형상을 모티브로 제작하기 시작한 'TOES MAN' 시리즈는 일상적 소재를



'세계-내-존재'

통해 철학적 실존문제를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윤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 미술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광주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대표작가 및 기획 총괄, 청년 예술가 협동조합 '예술마중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